

## 파룬궁은 세계의 량심이다

사람들은 많이 “홍콩의 량심”, “중국의 량심”이란 말을 들은적이 있지만 “세계의 량심”이란 말은 아마 들어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파룬따파는 “세계의 량심”이라고 불리우는가?

리익을 지고지상으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파룬따파 수련인들은 시종일관하게 “쩐싼런” 신앙을 견지하고 도덕과 심성의 제고를 첫자리에 놓으며 어떠한 리익의 유혹과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여도 그들은 자신의 도덕준칙을 절대 버리지 않으며 자신의 리익을 위해 량지를 팔아먹지 않았다. 중공의 사악한 세력은 파룬따파학원들이 “련공하지 않겠다.”는 한마디 말만 하면 자유를 얻을수 있고 거절하면 실업, 감금, 혹형, 죽음을 당한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수천수만의 파룬궁학원들은 “련공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해자에 대해 자비로 진상을 이야기하고 악을 버리고 선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집에서 련공하면 되

지 왜 하필 뛰쳐나와 진상을 이야기할 것이 무엇인가? “쩐싼런”을 신앙하는 파룬따파수련생들이 착한 것을 추구함으로 이렇게 좋은 공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너무나 자사적이 아닌가? 파룬따파가 중공악당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어찌 수련자라고 할수 있겠는가? 파룬따파수련생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고 선량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며 또한 파룬따파학원들이 전 인류의 도덕준칙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파룬따파학원들의 20 년동안의 수련실천은 인류로 하여금 도덕의 회복과 승화의 희망을 보게 했다. 사람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의 몸에서 새롭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존엄함을 보게 되었다.

고상한 파룬따파는 무수한 사람들의 내심세계를 밝게 비춰주었고 량지를 불려일으켰다. 력사는 증명할 것이다. 파룬따파가 “세계의 량심”이라는 영광스런 칭호에 손색이 없음을.



도

편

뉴

스



지난 7 월 22 일, 1500 명 파룬궁수련생들이 대만 대북자유광장에서 “선량을 구하고 박해를 결속하자.”는 집회와 초불추도회를 열어 파룬궁을 성원했고 진리와 신앙을 견지하다 생명을 잃은 파룬궁수련생들에게 애도를 표시하고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견책했다.



지난 7 월 20 일, 영국 파룬궁학원들은 런던 비둘기광장에서 세계각지에서 온 유람객들에게 파룬궁진상을 이야기했고 박해를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수많은 민중들은 진상을 료해하고 나서 즉시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고 파룬궁학원들의 반박해에 지지를 보냈다.



지난 7 월 13 일,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지역에서 온 3 천여명 파룬궁학원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 에 모여 시위행진과 집회를 거행하여 오늘까지 13 년동안 참혹하게 파룬궁수련생들을 박해한 중공의 죄행을 폭로하고 박해에 항의했다.



## 천여명 민중들이 재차 런명으로 정상성을 석방할것을 요구

지난 2 월 25 일, 당해현공안국 부국장 류가만과 국보대대 대장 리복국은 악경들을 거느리고 정상성(왼쪽 사진)을 랍치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당해현 526 명 민중들이 런명하고 손도장을 찍어 좋은 사람 정상성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당산시와 진황도시의 천여명 촌민들이 최근에 또다시 런명하여(오른쪽 사진) 파룬궁수련생 정상성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백성들이 런명한 호소편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상성은 가정용전기판매점을 꾸리고 사람

들을 잘 대하고 신용있게 경영하고 고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보살핀데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다.

지난 4 월 6 일, 정상성은 간수소에서 생명이 위급하여 당산안강병원에 호송되었다. 4 월 17 일, 정상성은 당해현간소소로 돌아올때 걸을 수 없어 업혀왔고 숨을 거두려고 했다.

우리는 (1201 명) 각급관원들에게 즉시 파룬따파와 파룬궁제자의 박해를 정지하고 무조건 파룬따파제자 정상성을 석방할 것을 호소한다.

## 중정방을 구하자



민중들의 서명



내려고중 리교장의 서명

지난 6 월 18 일, 대만 파룬궁수련생 중정방은 대륙에 가서 친척방문하고 대만으로 돌아오려고 비행장에 갔다가 중공국가안전국과 610 판공실 악경들에게 붙잡혀 구류당했다. 오늘까지 한달이 지났지만 집식구들은 그와 연계할수 없었다. 최근에 중정방의 딸 종애와 집식구들은 국내외에 구조편지를 보내고 서명하여 민중과 정부에서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지금 근만명이 호응해나섰다.

중력의 파룬궁수련생들이 기차역에서 서명활동을 할때 한 출가한 법사가 서명하면서 “ 파룬궁은 매우 좋고 중공은 너무도 나쁩니다.”라고 말했다.



## 연변박해소식

■ 지난 4 월 17 일, 연길시파룬궁수련생 태호(太浩), 김순선(金順善), 리기옥(李奇玉)은 신당인위성텔레비전을 안장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연길시악경에게 랍치되었다. 그들은 전기심문실에 갇혀 모진 혹형을 당했다.

■ 지난 4 월 17 일, 연길시파룬궁학원 류춘립(劉春立), 박문철(朴文哲)은 연길시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잔혹한 혹형을 당했다.

■ 지난 7 월 9 일, 룡정시 610 과 연길시 610 은 연합하여 개산툰용성수구참에 세뇌반을 꾸리고 파룬궁수련생 리호철(李虎哲), 안영희(安英姬), 리하(李霞), 리기옥(李奇玉), 림춘식(林春植), 리소하(李小霞), 로기흥(盧起興) 등을 묶어놓고 전화하라고 협박했다.

■ 지난 7 월 25 일, 팔가자파룬궁학원 리금숙(李今淑)은 당지 파출소 악경들에게 불법적으로 랍치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파를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길 바란다.

